■ '1등 광주' 시민의식 정착 방안 범시민 좌담회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한 1등 시민의식 정착 방안 좌담회'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회에는 박해구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홍순민 광주시 새마을회 사무처장, 현중순 호남대 초빙교수, 김우성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한 뒤 민·관·시민사회가 어우러진 체계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또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을 위해 의지와 열정을 모은 것 처럼, 이제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질서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광주 U대회 성공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해야"

'1등 시민의식 정착 방안 범시민 좌담회' 참석자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의식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순민 광주시 새마을회 사무처장, 박해구 광주시 자지행정과장, 현중순 호남대 초빙교수, 김우성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위직량기자 jrwi@

■ 참석자

박 해 구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홍 순 민 광주시 새마을회사무처장

현 중 순 호남대 초빙교수

김 우 성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김우성=광주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2015하계 U대회를 유치했다. U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현재 기초질서지키기 등 시민의식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 오히려 1만여명이 넘는 선수단에게 광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줘 대회 유치로 인한 도시브랜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자율적 실천운동 정착돼야

▲박해구=기초질서는 도시의 품격과 시민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일 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 발생통계를 살펴보면 광주가 2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질서 지키기는 시민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광주시가 꾸준히 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가 질서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홍순민=무질서는 상가주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 일부 지역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입간판, 업소 홍보용 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인도와 도로는 상가에서 무분별하게 쌓아놓은 적치물, 비닐포장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강력하고 상시적인 행정단속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시민의식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중순=하계U대회를 계기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초질서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요원하다. 아직도 여전한 음식물 쓰레기·폐기물 불법투기,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기 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정적인 문화다.

네트워크 구축 꾸준히 추진

▲김우성=시민·사회단체·행정기관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기초질서지키기 등 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고 본다. U대회 개최가 6년 남았다. 민,관,시민단체가 질서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꾸준히 추진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기초질서지키기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계 U대회 준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제시민으로서 마인드다.

▲박해구=U대회의 성공개최는 시민들의 참여여부에 달렸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기초질서 시키기는 단속에 앞서 스스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깨끗한 도시, 질서 있고 친절한 시민의식을 심기 위해 총력을 결집하고 있다.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1등 광주'의 발전상'과 '1등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가 됐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작고 사소한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2015 U대회의 성공을 더욱 빛내는 값진 성과가 될 것이다.

민·관·산 연대 시민운동 필요

▲홍순민=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 각 계층을 상대로 '3대 시민운동'(질서·친절·청결)에 대한 설문과 토론회 등 공감대를 확보한 뒤 시민이 실천해야할 덕목을 정하자. 또 제3섹터(민·관·산)이 연대해 총체적으로 참여하고 언론이 뒷받침하는 체계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전개하자. '나는 이것 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내용의 시민서약도 좋은 방안이될 수 있다.

▲김우성=시민의식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질서지키기 운동 등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예컨데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월드컵 등에서 질서의식을 보여주기는 했다. 그러나 현 주소는 대규모 행사 개최 때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질서의식을 뿌리내리게 할 방안은 없는 지 고민해야 할 때다.

▲박해구=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 문제다. 이같은 생각은 타인에게 곧바로 피해로 돌아온다. 각종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다. 자신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공공시설을 내집처럼 아끼는 문화시민이 돼야 한다.

시민 모두가 '광주 홍보대사'

▲현중순=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숙박, 음식점 업주, 종사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손한 태도와 말씨, 그리고 밝은 표정이 중요하다. 외지 방문객이 광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면 깨끗하지 않거나, 불친절했다는 얘기다. 특히 U대회 개최 때는 환대태도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것이다. U대회 때 외국인들이 길을 물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주의 주인이고,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친절은 보이지 않는 광주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정리=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기초질서 실천과제

① 시민 교육 및 계도

② 옥외 광고물 정비

③ 거리청소

④ 공중화장실 정비

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⑥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시가 U대회 유치를 계기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2009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전국 으뜸의 '기초질서 시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과제는 ▲시민 교육 및 계도 ▲옥외 광고물 정비 ▲거리청소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이다.

시는 '시민 교육 및 계도'를 위해 기초질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빛고을 사랑운동'을 전개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교통 종사자, 기초질서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올 말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BEST 시민'을 선발해 시상한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 불법 간판 5% 정비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 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면 개보수도 단행된다. 화장실 확충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1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분기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에 앞서 광주시내 5개구를 대상으로 74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토록하고 있으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